

등록금 이외 수입↑ 인건비 포함 고정비↓

단·중장기 재정계획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2018 재정, 인프라 구축 계획안’이 지난 2월 합동교무연합회에서 발표됐다. 대학본부는 향후 사립대학 최고수준의 재정규모 달성을 목표로 단기·중장기 수입 확충 방안을 비롯해 지출 효율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안의 골자는 등록금 이외 수입은 늘리되 고정비 지출은 줄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신문은 이번 호에서 본부가 발표한 계획안을 소개하고 재정·인프라 분야에 대한 분석을 2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재정예산처는 계획안에서 “10년 뒤 사립대학 최고수준의 재정규모 달성이 목표”라고 밝히며 연간 8.4%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재정예산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성장목표 달성 시 지금보다 약 5,800억 가량 증가한 1조 463억 원의 재정규모를 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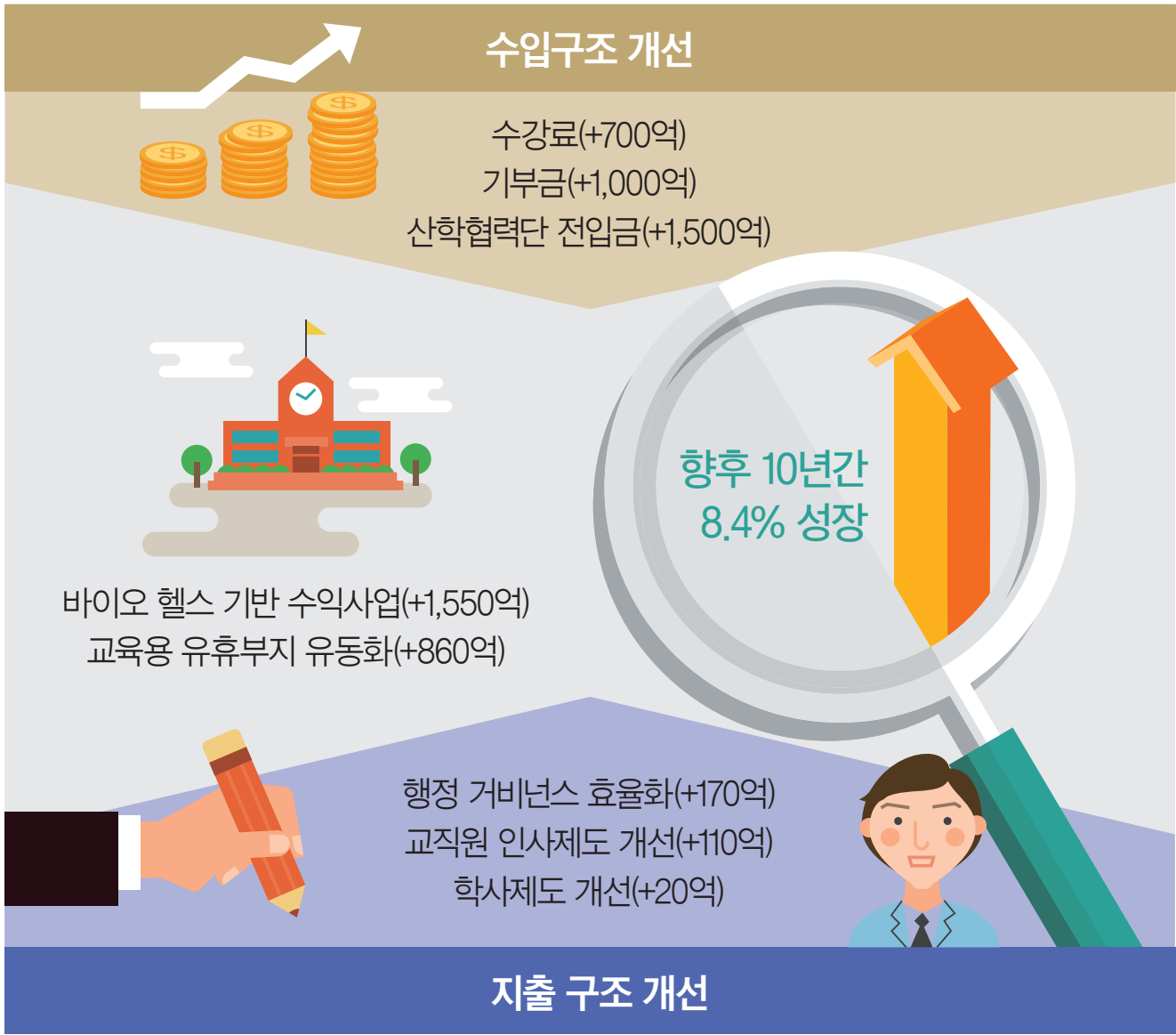
재정예산처는 목표 달성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학교 재정에서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금 수입 ▲고정비성 지출 비율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우리대학의 현 상황을 짚었다. 등록금 상한제 시행 이후 사립대학 재정규모 성장률은 평균 1.5%지만, 우리학교는 2.3%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은 2016학년도 기준 약 4,653억 원으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뒤를 이은 사립대학 5위이며, 당기운영차액 규모는 90억 원으로 사립대학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 수입은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16학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연간 1,900억 원으로 타 대에 비해 최대 246억 원에서 최소 122억 원까지 차이가 난다.

등록금 수입에서 타대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 재정예산처는 꾸준히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정예산처 박성화 과장은 2017학년도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10년 간 등록금을 동결해오면서 타 대학에 비해 너무나 뒤처지게 되었다”며 “우리 정도의 등록금 수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어려움도 생각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이 타대에 비해 낮은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2016학년도 기준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정 부담 전입금과 경상비 전입금은 약 269억 ▲산학협력단전입금 79억 원 ▲부속병원전입금 383억 원 등 총 730억 원으로 재정규모 상위 5개 대학 중 4위이다. 2016학년도 기준 기부금 수입 규모는 182억 원으로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지출이다. 재정예산처는 운영수익 대비 고정비성 지출이 높은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봤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6학년도 기준 ▲보수 ▲시설유역비 ▲공공요금 ▲교내외장학금과 같은 고정비성 지출은 3,620억 원으로 4,653억 원의 운영수익 중 77.8%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예산처는 “재정규모 상위 5개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지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지출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출 최적화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재정예산처의 지적은 2014년에 발표된 ‘대학 행정 및 재정발전 계획안’에서도 나타났다. 2013학년도 본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과 재정의 조화가 어긋난 점, 별도 수익을 위한 재정사업이 실패했던 점 등의 이유로 약 266억 원을 삭감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본부는 “타 대학에 비해 전체 예산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 부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쉽게도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재정예산처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2018학년도 자금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자금예산 5,014억 원의 63.3%에 달하는 3,174억 원이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잡혀있다. 등록금 수입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법정전입금 또한 올해 21.3억 원이 삭감되면서 사학연금 일부까지 본부

가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등록금 이외 수입은 늘리되 고정비 지출은 줄이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 측면에서는 ▲기금운용수입 ▲기부금 및 전입금 ▲국고보조금을 고정수입으로 보고 기타수입과 수업료 등 나머지 분야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출 측면에서는 ▲장학금 ▲인건비를 고정지출로 보고 이를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재정예산처는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 목표는 수입구조 개선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수입 부분에서는 등록금 외 3대 주요 수입인 수강료, 기부금, 산학협력단 전입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정예산처는 “일회성 수입 확대보다는 적은 규모라도 지속성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강료 부분에서는 국제교육원과 사회교육원 등에 비학위과정 개설과 확대에 중점을 뒀다. 명품 비학위과정 개설 및 한국어 교육 확대, 평생교육원 홍보 등을 계획했다. 최근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회교육원 명칭 변경 또한 이 기조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기부금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곧 맞이할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기부금을 유치하고, 정기 납부 약정 기부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액기부자를 발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산학협력단 또한 2016학년도 78.7억 원,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89.9억 원, 2018학년도 본예산 87.8억 원의 전입금을 부담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5년 내 연구비 2배 이상 증가를 목표로 산학협력단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와 사회사 활성화와 대형과제 적극 수주 등을 통해 점차 수입을 증대시켜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출 부분에서는 행정 혁신으로 고정비의 비중을 낮추고, 전반적으로 똑같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21세기 행·재정혁신을 토대로 고정비 중 인건비의 비중을 낮춘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고 볼 수 있다.

재정예산처는 올해 안에 24개 행정실을 10개 행정실로 줄여 행정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교직원 승진·승급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부터 감축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100억 원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적인 사업으로는 바이오헬스 수익사업과 교육용 유휴부지 유동화를 계획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수익사업으로는 ▲한방 성분 기반 함양치료제 개발 ▲경희제약 바이오시밀러 ▲한방 원료를 활용한 상품 개발로 나누어진다. 우리학교가 강세를 보이는 한·의학을 직접적인 수입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3개 분야 모두 기술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발전시키고, 상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용 유휴부지를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캠 주변의 부지를 활용하여 R&D 빌리 구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캠 기흥호수 근처 부지에 ▲R&D시설 ▲기숙사, 실험연구동 등 학교 시설 ▲도로, 주차장 ▲UN평화공원 및 체육 문화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된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이 편리하고 쾌적한 열람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하였고, 『영상음향자료실』도 리모델링 후 새로운 열람·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1열람실

- 트렌드에 부합하는 오픈형 열람대 및 의자 설치
- 전자 학습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배선 솔루션 설치
-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램프형 조명 설치
- 대용량 무선랜 설치



영상음향자료실

-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한 열람책상 설치
- DVD 열람석 및 PC 열람석 설치
- 휴식을 위한 소파 및 테이블 설치
- DVD 벽면서가 설치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KYUNG HEE UNIVERSITY CENTRAL LIBRARY

201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참가대상
공학계열 학부생(최소 2인 이상, 타 학과간 구성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3.15(목) ~ 4.27(금)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 (icee@khu.ac.kr)
다운로드: 공학교육혁신센터 공지사항 참조 (abeek.khu.ac.kr)

활동내용
· 창의·융합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직접 시제품으로 제작해보는 프로그램
· 교내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거점 경진대회, 전국 경진대회 출전
· 산업계 연계 공과대학 종합설계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할 시 기업 현장 방문 및 멘담들이 제공될 예정 (리스트 참조)

지원혜택
· 시제품 제작 재료비 및 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
· 우수팀 중 선발을 통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관련 해외 연수 기회 제공
· 학과에 따라 본 경진대회와 졸업작품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대상내용
· 교내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경희대학교 총장상) / 상장 및 상금
· 거점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성균관대 공학교육거점센터장 상) / 상장 및 상금
· 전국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후원기관장상, 한국산업기술진흥위원장상 / 상장 및 상금
※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일정
· 제안서 심사: 5월 초
· 교내 경진대회: 6월, 8월 (2회 진행)
· 창의적 종합설계 거점 경진대회: 9~10월 중(교내 임상자 대상)
· 창의적 종합설계 전국 경진대회: 11월 중(거점대회 임상자 대상)

문의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031-201-3254 또는 icee@khu.ac.kr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